

## 중국, 베이징시 저작권산업발전 기본현황

전 세계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저작권산업의 발전이 왕성해지기 시작하면서 각국 정부는 연이어 다양한 조치를 통하여 저작권산업 발전을 지지하여 왔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의 저작권 관련 산업 한해 생산액이 200억 미달러를 초과한다. 중국의 경우, 저작권산업 초기 발달이 비교적 늦었지만 현재의 발전 속도는 빠른 편이다. 특히, 중국 수도인 베이징은 중국 문화의 중심지로서 시정부에서 저작권보호업무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과학발전을 견지하고 “창조형도시건설”을 전략목표로 내세우면서 베이징 저작권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2007년도 말, 베이징은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음악·영상, 전자 및 인터넷 등 각 종류별 출판업체 3,537개, 각 종류별 저작물 전파기구 3,000여개, 문화예술단체 및 공연장소 약 2,000개, 출판물 발행업체 6,000여개, 인터넷사이트 13만개, 전문창작(디자인)인원 40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2007년 베이징 지역에서 출판된 도서는 125,412만 종으로 전국의 40.14%, 정기간행물은 2,809종으로 전국의 34.32%, 녹음·녹화제품은 10,991종으로 전국의 59.57%를 차지한다. 또한, 전자출판물은 6,196종으로 전국의 59.31%를 차지하고 수입한 출판물의 저작권은 6,613종으로 전국의 59.57%, 수출한 출판물의 저작권은 1,529종으로 전국의 58.97%를 차지한다.

한편, 베이징 지역의 한해 저작물 등록건수는 10여만 건을 초과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록은 5,000건을 돌파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관춘(中关村)과학기술단지, 이주양(亦庄)경제기술개발구, 신흥문화창조산업밀집구 등 첨단과학기술창조형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나아가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저명한 기업도 탄생하게 되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2007년 베이징시 저작권 관련 산업 자산총액은 약 7,260억 위안으로 2006년 대비 17.9% 증가하였고, 수입은 약 4,601억 위안으로 27.3% 증가하였다.

위에서 알 수 있듯, 베이징시는 중국 전체 저작권 관련 산업 규모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경제성장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는 중국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도시 이미지 구축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o 北京地区版权产业发展基本状况, 中国新闻出版报, 2009.1.23